

Briefing

발행일 2025. 11. 15 발행처 대전연구원 발행인 김영진

주소 대전 유성구 전민로 37 tel. 042-530-3500 fax. 042-530-3528

일·생활균형정책과 부모돌봄 연계 방안¹⁾

류유선 경제사회연구실 책임연구위원

논의 배경

- 경제, 교육, 문화 등 자원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고착화되면서, 저출생과 고령화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두드러진 위협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대전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5명에서 2023년 0.79명으로 하락했고(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2024), 2025년 6월, 대전의 고령화율은 18.6%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음
- 낮은 출생률에 대한 대안 가운데, '일과생활의 균형'이 중요 정책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자녀돌봄을 위한 제도가 촘촘히 개발·시행되는데 비해, 부모 돌봄은 일생활균형정책에서 소홀히 다뤄지고 있음
- 질병이나 노령으로 인한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구성원 돌봄을 위한 '일·생활 균형 정책' 현황과 대전시민의 필요와 요구 사이의 간극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함

대전 20-50대의 부모 돌봄 현황

■ 대전 20-50대 돌봐야 할 부모 유무 및 건강 현황

- 600명 응답자의 36.7%가 '돌봐야 할 부모'가 있으며, 건강상태는 다음과 같음
 - 79.1%가 매일 복용해야 할 약이 있음
 - 40%가 병원이나 장보기 등 생존에 필요한 외부활동을 혼자할 수 없음
 - 37.7%가 노인성 질환과 장애를 갖고 있음
 - 31.4%가 청소나 빨래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함
 - 15.5%가 치매 등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음

표 1. 대전 시민이 돌봐야 하는 부모 유무와 건강 현황

(단위: 명, %)

응답자(N)	돌봐야 하는 부모가 있다		돌봐야 하는 부모가 없다	
	부 또는 모	부와 모		
600	21.2	15.5	63.3	
돌봐야 하는 부모가 있는 경우, 건강 현황				
매일 약 복용	외부활동(병원, 장보기 등)도움 필요	일상생활(청소, 빨래 등) 도움 필요	노인성 질환 및 장애	장기요양등급 판정 (치매 등)
79.1	40.0	31.4	37.7	15.5

주: '건강 현황'은 돌봐야 하는 부모가 있다고 답한 22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돌봐야 할 부모가 있는 대전시민의 고충 정도

- 학업지속, 취업활동, 경제활동 지속 등에 대한 고충의 정도는 돌봄이 필요한 부모가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크게 나타남

표 2. 돌봐야 할 부모가 있는 대전 시민의 고충

(단위: 명, 점)

구분		가족돌봄으로 인한 학업 지속 고충정도		가족돌봄으로 인한 취업 고충정도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제활동 지속 고충정도	
		응답자(N)	평균점수	응답자(N)	평균점수	응답자(N)	평균점수
돌봄이 필요한 부모 유무	있다	158	2.04	158	1.83	170	1.81
	없다	235	1.95	233	1.82	245	1.79

주: 평균 점수는 4점 기준임(1점:전혀 그렇지 않다 - 4점:매우 그렇다)

■ 돌봄이 필요한 부모가 있는 집단의 성별·연령별 고충 정도

- 성별로 보면 여성이,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학업 지속, 취업 활동, 경제활동 지속 등 세 분야 모두에서 가장 고충이 큰 것으로 나타남

1) 본고는 2025년 완료된 정책과제(2025-16) 「대전시민의 일·생활 균형 현황과 정책지원방안」연구에서 실시한 20-50대 대상 대전 시민의 '일·생활 균형 현황 및 정책수요' 설문조사 가운데 '부모돌봄 관련 일부를 발췌 재구성한 것임

표 3. 돌봄이 필요한 부모가 있는 집단이 인식하는 가족돌봄으로 인한 학업, 취업, 경제활동 지속의 고충정도

(단위: 명, 점)

구분		돌봄 부모가 있는 집단의 가족돌봄으로 인한					
		학업 지속 고충		취업 고충		경제활동 지속 고충	
		응답자(N)	평균점수	응답자(N)	평균점수	응답자(N)	평균점수
성별	남성	98	1.94	100	1.70	109	1.70
	여성	60	2.22	58	2.05	61	2.02
연령대	20대	23	1.91	23	1.74	22	1.64
	30대	32	2.50	30	2.27	32	2.34
	40대	57	2.00	56	1.70	60	1.68
	50대	46	1.85	49	1.76	56	1.71

주: 평균 점수는 4점 기준임(1점:전혀 그렇지 않다 - 4점:매우 그렇다). 돌보아야 하는 부모가 있다고 답한 22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돌봄이 필요한 부모를 둔 30대 여성이 타 범주의 시민보다 학업지속과 취업활동, 그리고 경제활동 지속에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집단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생애과정에서 어린 자녀돌봄이 집중된 30대 여성이, 부모 돌봄 상황까지 겹치게 되는 '이중 돌봄' 상황인 사례로 보여짐

■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제도

'가족돌봄' 휴가와 휴직	
▶ '가족돌봄 휴가'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무급으로 연간 최장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 휴직'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무급으로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에게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에 대해 물었을 때, 응답자의 40.4%가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응답자의 43.2%가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알지 못했고, 응답자의 26.9%가 직장 내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제도가 없다고 답함
- 이는 가족돌봄을 위해 실제로 존재하는 제도 자체가 시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과 법적인 제도 접근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

표 4.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제도 유무

(단위: 명, %)

구분	제도 유무			
	응답자(N)	있다	없다	잘모르겠다
가족돌봄휴가	465	32.7	26.9	40.4
가족돌봄휴직	465	29.9	26.9	43.2

주: 경제활동을 하는 자(465명)에 한하여 분석함

■ 가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활용

- 제도가 있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에도 '활용을 안한다'라는 대답이 가족돌봄휴가에서 55.9%, 가족돌봄휴직에서 65.5%로 조사됨
- 또 '활용못함'도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에서 각 25%와 24.5%가 나왔는데, 이는 '안함'과는 다른 의미로 '할 수 없음'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5.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제도의 활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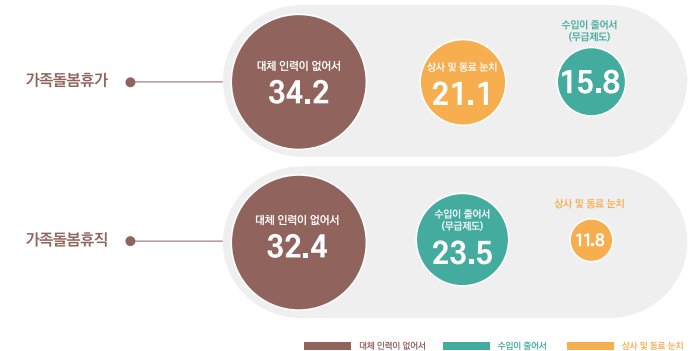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제도가 있다면, 활용 여부			
	응답자(N)	활용함	활용못함	활용안함
가족돌봄휴가	152	19.1	25.0	55.9
가족돌봄휴직	139	10.1	24.5	65.5

주: 경제활동을 하는 자(465명) 가운데 직장에 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자에 대한 분석

-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활용못함'으로 응답한 이유는 '대체인력이 없어서', '상사 및 동료 눈치', '무급이라 수입이 줄어서' 주요하게 조사됐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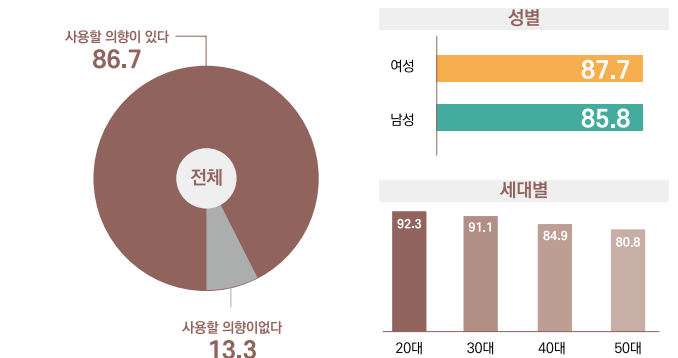
그림 1.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제도



■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제도 유급화에 따른 이용 의향

- 대전시민의 86.7%가 현재 무급인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유급화가 된다면 사용하겠다는 의향을 보였음

그림 2.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이 유급화되면?



- 여성과 남성 양쪽 모두에서 제도에 대한 높은 이용 의향(여성 87.7%, 남성 85.8%)을 보였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제도 이용 의향이 적었음
- 일반적으로 부모돌봄에 대한 부담이 가장 적을 수 있는 20대가 92.3%를, 생애과정에서 부모돌봄이 집중될 50대가 80.8%를 보임

부모돌봄과 일·생활균형 정책의 연계

■ 대체인력이 있는 일터 만들기

-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나 가족돌봄휴직이 필요한 응답자의 30% 이상이 '대체인력부족'을 문제로 지적

■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제도 시민 홍보와 접근성 높이기

-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제도 자체를 모르는 시민이 40%가 넘고, 제도가 '유급화'되면 활용하겠다는 시민은 86.7%인 상황으로, 제도 홍보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 필요

■ 경력단절 없는 30대를 위한 일과 가족돌봄의 균형 정책

- 현재 자녀 돌봄에 집중된 일·생활균형정책을 부모와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 전체로 확대 필요. 특히 학업과 경제활동 지속, 취업활동에 가장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 필요

표 6. 돌봐야 하는 부모가 있는 경우 가족돌봄으로 인한 고충 정도 : 성별·연령대별

(단위: 명, 점)

구분		가족돌봄으로 인한 학업 지속 고충정도		가족돌봄으로 인한 취업 고충정도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제활동 지속 고충정도	
		응답자(N)	평균점수	응답자(N)	평균점수	응답자(N)	평균점수
성별	남성	98	1.94	100	1.70	109	1.70
	여성	60	2.22	58	2.05	61	2.02
연령대	20대	23	1.91	23	1.74	22	1.64
	30대	32	2.50	30	2.27	32	2.34
	40대	57	2.00	56	1.70	60	1.68
	50대	46	1.85	49	1.76	56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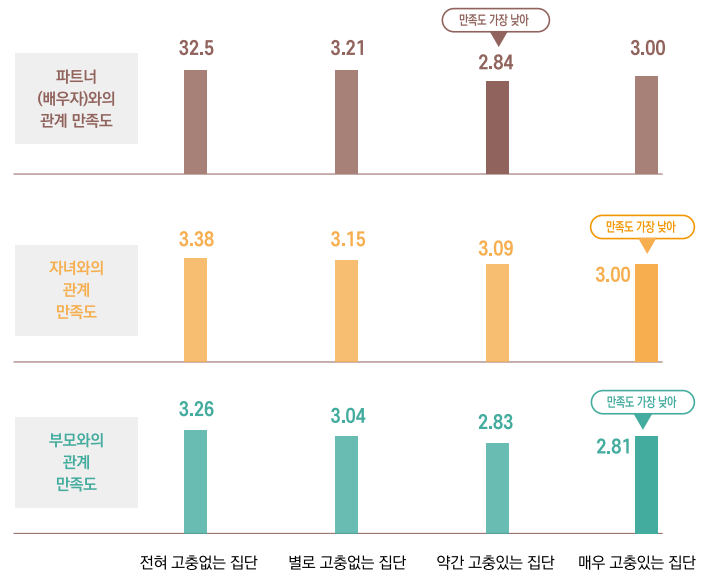
주. 평균 점수는 4점 기준임(1점:전혀 그렇지 않다 - 4점:매우 그렇다) 돌봐야 하는 부모가 있다고 답한 22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일과 가족돌봄 균형의 어려움과 부모와의 관계

- 일과 가족돌봄의 균형에 어려움이 많은 집단일수록, 가족관계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3. 연령대별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제활동 지속 고충의 정도

(단위: %, 점)



평균 점수는 4점 기준(1점:전혀 그렇지 않다 - 4점:매우 그렇다)

정책적 시사점

■ 일·생활균형 정책의 대상 확대

- 현재 저출생과 자녀돌봄에 집중된 일·생활균형정책의 대상을 '가족구성원 전체'로 확대 필요
- 특히 노령 및 질병 상태의 부모나 가족구성원이 있는 시민의 번아웃 예방을 위해 일·생활균형정책의 확대 필요

■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의 유급화

- 현재 '연 10일,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화함으로써, 부모나 배우자 등 병원 동행 및 간병 등 실질적인 가족돌봄의 가능성 높이기
- 현재 '연 90일, 무급'인 가족돌봄휴직을 '휴직'이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유사하게 제도 개선 필요

■ 30대 여성의 이중 돌봄 완화

- 어린자녀 및 부모돌봄이라는 이중돌봄 상황에 놓인 30대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일·생활균형정책 및 사업의 발굴